

이런 症狀일땐 의심하십시오

고혈압의 증상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뒷머리가 아프기만 해도 혹시 고혈압이 아닐까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고 반대로 정기신체검사에서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이 자신은 한번도 머리가 아픈적이 없고 생활해 오는데 아무런 불편도 없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을리가 없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고혈압의 증상에 관하여는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혈압에는 증상이 있음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고혈압이 심하여 여러가지 합병증이 발생되면 합병증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합병증이 없는 경한 고혈압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아무증상이 없다. 따라서 고혈압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를 시도하여 성인병을 예방하는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고혈압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 혹시 고혈압은 아닌가하고 혈압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은 손해 볼 일이 아니지만 증상이 없다고 하여 고혈압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혈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데도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혈압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다. 대부분의 고혈압환자가 특별한 원인이 없이 혈압이 올라가는 소위 본태성고혈압에 속하지만 일부환자는 어떤 원인질환이 있고 그에 의하여 혈압이 올라가는 이차성고혈압에 속한다. 이러한 이차성 고혈압에서는 원인질환에 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의사가 고혈압환자를 진료할 때는 반드시 이차성고혈압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증상이 있는가하고 유심히 물어보는 것도 이차성고혈압의 진단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다.

고혈압의 증상을 본태성고혈압, 이차성 고혈압 및 고혈압합병증에 의한 증상등으로 나누어서 알아보기로 한다.

본태성 고혈압의 증상

본태성 고혈압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무증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이 일단 발생된 다음이라야 증상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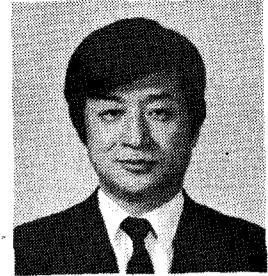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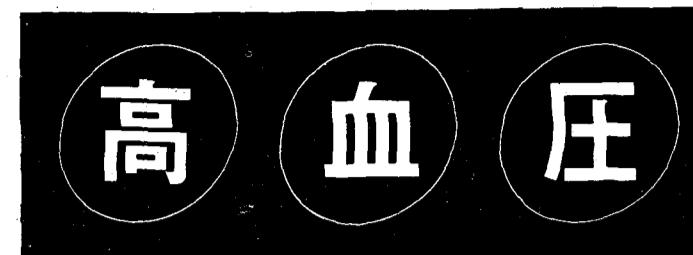
오래전부터 고혈압의 증상으로 알려진 몇 가지 증상이 있다. 두통, 현기증, 코피가 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혹시 고혈압이 아닌가하여 의사의 진찰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진찰결과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고혈압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발생

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대부분은 평소에 전혀 증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고혈압의 증상으로 알려져 온 대표적인 증상인 두통, 현기증 및 코피가 나는 것 등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두통 : 고혈압도 상당히 흔한 질환이고 긴장성 두통도 상당히 흔한 병이므로 이 두가지가 우

자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기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강압제의 사용에 의한 기립성고혈압, 즉 갑자기 일어설 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져서



서정돈

<서울醫大>
내과 교수

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관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어 심장근육으로의 혈액 순환에 지장이 생기면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등이 발생되는 데 이때 가장 중요한 증상이 가슴부위에 나타나는 통증이다. 협심증통증의 특징은 대개의 경우 초기에는 신체활동에 수반하여 가슴중앙부에 발생되어 약 2~5분 정도 지속되는 것인데 압박감 또는 쥐어짜는듯한 느낌을 주는 통증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되면 협심증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정도가 심하고 지속시간이 긴 통증이 발생된다.

◆신기능저하 : 장기간 지속된 고혈압에 의하여 신기능이 저하되면 빈혈, 부종 등 각종 증상이 나타난다.

이상 열거한 외에도 여러가지 합병증에 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상세한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차성 고혈압에 의한 증상

어떤

원인질환이 있고 그 질환에 의하여 고혈압이 발생되는 것을 이차성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상당수의 이차성고혈압은 수술에 의하여 완치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차성고혈압의 원인으로는 앞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신질환, 갈색세포종, 원발성 갈도스테론증등 여러가지 있는데 이 때 고혈압과 함께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갈색세포종의 경우 간헐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면서 맥박이 빨라지고 당뇨병이 관찰되며 원발성 갈도스테론증의 경우에 근육쇠약감, 이상감각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증상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일일이 기역할 필요는 없으나 일단 고혈압으로 진단되면 의사의 진찰을 받을 때 자기가 생각하여 중요한 것 같지 않더라도 모든 증상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설명을 하였다.

두통·현기증·코피가 대표적 高血圧 증상 심한高血圧 경우 아침에 일어날 때 뒷목부위 두통도

된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두통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여 고혈압의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환자가 느끼는 두통은 대부분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긴장성 두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고혈압때문에 생긴 두통이 아니고 오래동안 긴장을 하거나 너무 신경이 예민한 것 때문에 생기는 두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통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게되고 결과적으로 고혈압으로 진단되는 것은 건강을 위하여 손해를 보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두통은 고혈압의 증상으로 생각해 버리면 나중에 두통이 없을 때는 혈압을 재보지도 않고 고혈압이 좋아진 것으로 오해하여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꼭 주의하여야 한다.

실제 정기검진 또는 연례신검

연히 같은 환자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고혈압이 있는 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 중 16%가 두통을 호소한 반면에 자신의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74%가 두통을 호소하여 자신의 혈압을 아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사이에 두통을 호소하는 빈도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환자의 경우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통은 고혈압의 증상이라기보다는 사회경신적 질환의 표시인 것 같고 두통은 고혈압이 있다고 진단된 후에 더 악화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고혈압때문에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 고혈압정도가 심한 환자들로 혈압이 적절하게 치료되면 두통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혈압에 의한 두통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악성고혈압 정도로 심한 환자에서 관찰되는 이 두통은 주로 아침에 일어날 때 심하게 나타나서 그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호전되며 뒷목부위의 두통이 특징적이다.

◆현기증 : 현기증과 고혈압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은 현기증이 있을 때 혈압을 측정해보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고혈압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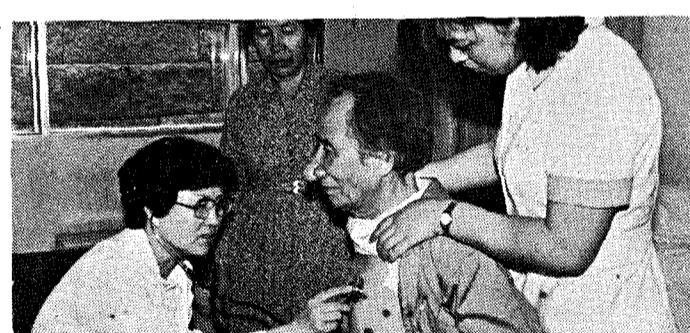
고혈압때문에 코피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오래 끄는 경우는 있다.

고혈압의 합병증에 의한 증상

이처럼 고혈압자체에 의한 증상은 별로 없지만 일단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고혈압합병증의 진단에 도움이 되므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고혈압성 심질환 : 고혈압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좌심실비대가 초래되고 결국 좌심실의 기능저하에 의하여 심부전 상태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 심부전상태가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운동시 호흡곤란이다. 안정시 또는 가벼운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별 불편이 없으나 좀 심한 운동을 하면 숨이 차게 된다. 물론 정상인도 심한 운동을 하면 숨이 차게 되지만 정상인이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는 정도보다 훨씬 더 가벼운 정도의 운동으로도 호흡곤란이 유발되는 것으로 병적인 상태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더 진행하면 안정시 또는 수면중에도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고 전신부종이 나타날 정도로 악화되기도 한다.

◆관동맥질환 : 고혈압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관동맥질



당뇨성신경장애·신경통

이런 증상일 경우가 당뇨성 신경장애입니다.

혈액중에 고혈당은 신경조직까지 파괴시키기 때문에 당뇨환자 중 약 80%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의 당뇨성신경장애가 발생합니다.

(日藥理誌 : Folia pharmacol. Japan)

- 팔다리에 무감각증, 저림, 근육통이 나타난다.
- 시력이 떨어지며 물체가 이중으로 보인다.
- 발기부전증이 나타난다. ● 배뇨가 곤란해진다.

당뇨성 신경장애에는 왜 '비타메진'인가?

(日本ビタミン学会(II) : 日本ビタミン 학회면, 1982)

비타메진은 신경을 재생시키는 최선의 신경장애 개선제로, 약화된 신경조직 및 근육조직에 활성형 보호소를 공급해 주므로써

- 파괴된 신경조직을 조속히 재생시켜 줍니다.
- 소염진통제가 아니면서 진통효과가 있습니다.

신경통 치료법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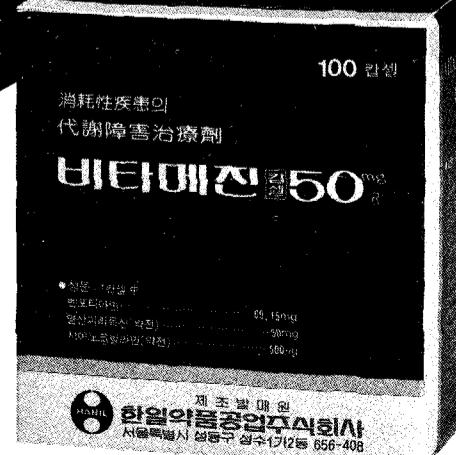
참을 수 없는 신경통도 원인은 신경조직의 파괴 및 압박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경조직을 살려내는 비타미진을 복용하게 되면 신경통은 원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니다.

일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임시방편의 약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비타미진으로 신경통을 잊으십시오. 신경계 질환을 원인적으로 개선하는 비타미진은 알콜중독에 의한 신경장애, 근육통, 관절통, 말초신경장애에도 좋습니다.

* 제품 선택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함량이 높으면서도 흡수가 잘되는 제품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타미진은 신경에 잘 드는 비타민 B군을 다양으로 함유하면서도 흡수가 빠르며 축적작용이 없는 당뇨성 신경장애 개선제입니다.

당뇨성 신경장애, 신경통에

비타메진 50mg



표준소매가격 100캡슐 22,000원